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12월 19일



복음 나누기

대림 제4주일(12월 19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39-45)



두 여인의 만남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눕니다.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고 두 여인의 찬미가 따뜻한 색감으로 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한 두 분의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의 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42)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온통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쁨은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즉 세례자 요한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기쁨과 희망은 주님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이르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잉태와 출산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위험한 상황속에 놓이게 되고,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기뻐 뛰노는 아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다가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쁨은 다른 모든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물질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참된 기쁨입니다.

올해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는 매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 오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보다 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참된 기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주님께 대한 참된 기쁨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